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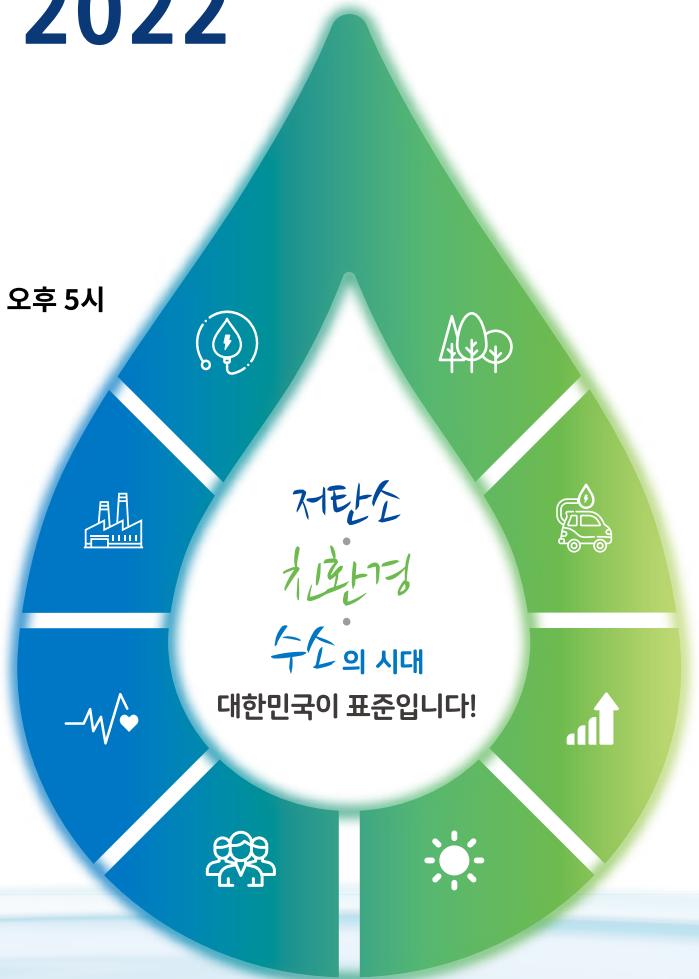


그린 비즈니스 위크 2022

- 그린볼루션(GreenVolution) 엑스포
- 그린전환 잡콘서트
- 탄소중립 녹색성장 컨퍼런스

2022년 10월 12일(수)-14일(금) | 오전 10시 - 오후 5시

Coex



주최  국회수소경제포럼

주관  머니투데이

 coex

그린 비즈니스 위크 2022

2022년 10월 12일(수)~14일(금)



주요 국가들이 기후 변화로 인한 온난화로부터 지구를 구해내기 위한 에너지 대전환의 큰 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은 수소, 원자력, 신재생에너지 등 청정에너지가 구현하는 새로운 경제 생태계에서 주도권을 쥐려는 치열한 경제 전쟁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유럽을 중심으로 친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그린’을 빼면 제품을 생산하고 팔기 어려운 시대로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 산유국인 중동조차도 석유 이후를 대비해 수소 등 친환경 에너지 시장에 앞다퉈 뛰어들고 있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가 됩니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석유 석탄 같은 화석연료 사용이 줄어드는 대신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와 수소 등 신에너지 시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휘발유 대신 전기로 달리는 전기차 시장의 급성장은 저탄소 친환경 발전으로의 전환을 촉진시키고, 배터리, 배터리 소재, 충전인프라 등 자동차와 연관된 새로운 산업의 융성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한데 이어 중간 기점 격인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도 2018년 대비 26.3%에서 40%로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둔 지난 5월초에는 청정수소 발전 구매 의무제도(CHPS)를 도입하는 수소법 개정안이 국회 관련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해, 수소를 활용한 탄소 중립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우리 기업들도 빠르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소차에서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가진 현대차는 전기차에 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SK, 포스코, 한화, 현대중공업, 효성, 코오롱, GS, 롯데케미칼 등 대한민국 대표 기업들이 수소 산업화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는 배터리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무대로 뛰고 있습니다. 두산그룹은 원자력, 풍력, 수소 등 청정 에너지 산업 전반에서 경쟁력 있는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국회수소경제포럼과 머니투데이는 이런 변화의 흐름에 주목해 2019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수소 엑스포를 개최한데 이어 2020,21년엔 그린뉴딜 엑스포로 발전시켰습니다. 올해는 새 정부 출범과 성장하고 있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산업을 포괄하는 의미를 담아 한국 MICE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코엑스와 손잡고 ‘그린 비즈니스 위크2022’라는 이름으로, 그린볼루션(GreenVolution) 엑스포, 잡콘서트, 컨퍼런스 등 다양한 행사를 선보입니다.

행사 개요



- 행사명 : **그린 비즈니스 위크 2022**
- 기 간 : **2022년 10월 12일(수)~14일(금)**
- 장 소 : 코엑스
- 시 간 : 오전 10시 ~ 오후 5시
- 주 최 : 국회수소경제포럼
- 주 관 : 머니투데이, 코엑스
- 후 원 :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경기도, 한국가스공사 등 (예정)

행사 내용



그린볼루션(GreenVolution) 엑스포

- 삼성·현대차·SK·LG·롯데·포스코·한화·GS·현대중공업·두산·효성·코오롱 등 국내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한국전력·한국가스공사 등 대표 공기업,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 기관 등 탄소중립, 녹색성장 관련 민관학 핵심 주체들이 대거 참여해 관련 산업 생태계의 미래와 혁신기술 정보 등을 대거 선보입니다.
- 수소, 원자력,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수소차, 전기차, 전기차 배터리, 저탄소 친환경 소재 부품, 순환경제에 이르기까지 그린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모든 산업들이 망라된 탄소중립 녹색성장 분야의 대한민국 최대 종합 전시회입니다.



그린전환 잡콘서트

- 에너지가 바뀌면 산업이 변하고 일자리가 달라집니다. 청정 에너지 시대를 이끌어가는 국내 대표 기업들이 취업준비생, 대학생,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 등을 대상으로 주력 사업, 필요한 인재상, 채용 과정 등을 소개합니다. 대한민국의 젊은 인재들이 다양한 미래 친환경 산업에서 자신의 꿈을 펼칠 기회와 정보를 제공하는 길라잡이가 되겠습니다. 기업에도 미래 인재를 선점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컨퍼런스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새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 방향과 기업 생태계, 미래 비전, 글로벌 산업 변화 등을 한눈에 들여다보고 이해할 수 있는 핵심 분야를 주제로 선정해 소개하고 투자 가치가 높은 청정 에너지와 연관 산업의 중요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린 비즈니스 위크 2022'가 국내외 탄소중립 녹색성장 분야의 지식 공유와 인적 네트워크의 허브가 되는데 핵심적인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2021 주요 참가사 전시 품목

현대자동차	아이오닉5, 넥쏘 등 친환경차 풀라인업	첫 전기차 전용 플랫폼 적용 모델 아이오닉5와 첫 수소전기차 넥쏘 등 전시
	초고속 전기충전브랜드 E-pit	현대차 초고속 전기차 충전브랜드. 350kw급 충전인프라 확보
	첨단 이동형 수소충전소 'Moving Station'	액시언트 상용차 기반으로 제작. 이동형 수소충전소로 국제표준충전 프로토콜 충족. 최대 350bar 적용
현대모비스	엠비전 팝	스마트폰으로 차량 제어를 가능하게 해주는 전기차 전용 초소형 모빌리티 시스템
LG	LG유플러스 자율주행 기술 탑재 GV80	자율주행, 5G관제, 다이내믹업 등 첨단 차량 자율주행 시스템 시연
	LG에너지솔루션 차세대 배터리 기술	포르쉐 전기차 타이칸 장착 파우치형 배터리 등 차세대 초고성능 배터리 전시
	LG화학 렛제로 친환경 철학	재활용 플라스틱 원료 전시는 물론 탄소중립 전략 공개
현대중공업	암모니아·수소선박 등 육·해상 수소밸류체인	초대형 디오라마 설치하고 그린수소 운송전략 공개
	암모니아 추진엔진 및 액화수소연료탱크	암모니아 상태로 수소 운반할 가능케 하는 각종 원천기술 개발 현황
한화	신재생에너지 최적화 수전해기술 시스템	전력사용량 획기적으로 줄인 AEM(음이온교환막) 수전해방식 개발
	한화임팩트 수소가스터빈 연소기	수소혼소발전기술 구현 핵심기술 전시
SK	SK E&S 및 SK(주) 수소 유통·활용 밸류체인 디오라마	전력사용량 획기적으로 줄인 AEM(음이온교환막) 수전해방식 개발
	SK이노베이션 차별화된 배터리 기술력 공개	분리막 안전 확보 핵심 기법 Z폴딩 및 E-팩 기술 등
두산	3MW급 풍력발전기 및 트라이젠	수소, 전기열 동시 생산하는 연료전지 트라이젠 전시..올해 상용화 예정
	퓨얼셀파워 개발 SOFC	기존 제품 대비 효율 40% 이상 높은 세계최고 전력발전효율 연료전지
포스코 모빌리티솔루션 (구 포스코SPS)	구동모터코아, 수소연료전지분리판 등 전기차 핵심부품	현대차 수소전기차는 물론 두산 등의 드론용 수소전지에도 폭넓게 적용
한국가스공사	2040년 미래 수소경제사회 디오라마	천연가스 사업 인프라를 기반으로 수소를 제조하고 공급함과 동시에 해외 수입 수소 등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미래상 구현
	수소사업 추진 방향 및 해외 그린수소 생산 및 도입 계획	거점형 수소생산기지 운송망, 수소 제조·운송·저장·이용에 관한 전국적인 수소 인프라 구축 방안 소개
	국내 수소생산·공급·활용 인프라 조성 방안	해외 그린수소 도입 방안 및 CCUS
한국전력공사	해상풍력 일괄설치시스템 모형	해상풍력 설비를 육상에서 완성한 후 특수선을 이용해 통째로 옮겨 원하는 위치에 설치하는 방식
	유리창호형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반투명하고 가벼운 페로브스카이트 특수소재 활용한 창호형 태양전지 시스템
	수전해 그린수소와 화학적 블루수소 생산설비 모형	한전 전력연구원에서 개발중인 그린, 블루수소 생산기술 소개
한국동서발전	보도블록형 태양광 패널 모형	보도블록형 패널에서 생산한 전기를 LED형 보도블록에 공급해 바닥형 전광판 운용
	대산수소연료전지발전소	용량기준 세계 최대 규모인 50MW급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소개
	수소전력생산시스템	발전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수소를 생산 하는 시스템 소개

※ 2021 그린뉴딜 엑스포 기준

미국, 일본, EU 2030년 NDC 상황... 더 빨라진 탄소중립 시계

탄소중립은 이제 누구도 돌이킬 수 없는 메가트렌드입니다. 2019년 12월 EU(유럽연합)를 시작으로 중국(2020년 9월), 일본(2020년 10월), 미국(2021년 1월)이 연이어 탄소중립을 선언했습니다.

한발 더 나아가 지난해 4월 기후정상회의에서는 주요국들이 일제히 2030년 NDC를 대폭 높였습니다. 미국이 기존 2025년까지 2005년 대비 26~28% 감축에서 2030년까지 50~52% 감축으로, 일본은 2030년까지 2013년 대비 26% 줄인다는 계획을 46% 감축으로 높였습니다. EU는 2030년 1990년 대비 40% 감축에서 55% 감축으로, 영국은 기존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68% 줄인다는 감축 수위를 2035년 78%까지 감축하는 것으로 조정했습니다.

주요 국가들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은 전세계적인 탄소 감축 속도를 높이는 트리거가 될 전망입니다. 탄소 감축 노력 정도가 기업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에 따른 불균형을 보완하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등이 도입될 전망입니다. 대표적으로 EU가 추진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지난해 7월 집행위원회의 입법 초안에 이어 지난해 12월 의회 수정안이 공개됐습니다.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수정안대로 도입이 확정되면 2025년 1월부터는 제도가 본격 시행돼 EU 역내로 수입되는 제품 가운데 자국 제품보다 탄소배출이 많은 제품에 대해서는 비용을 물리게 됩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유럽 등의 에너지 부족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한 원유, 석탄, LNG(액화천연가스) 등 원자재 가격 급등은 에너지 안보 중요성과 함께 굳건한 탄소중립 달성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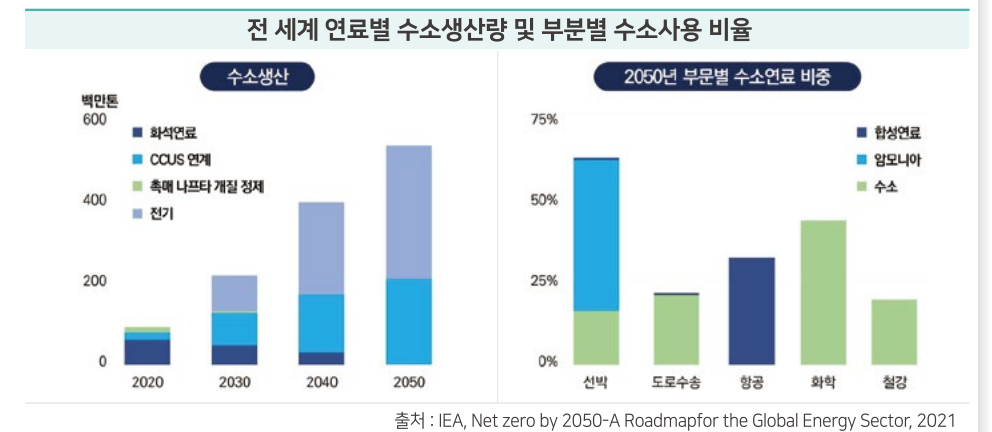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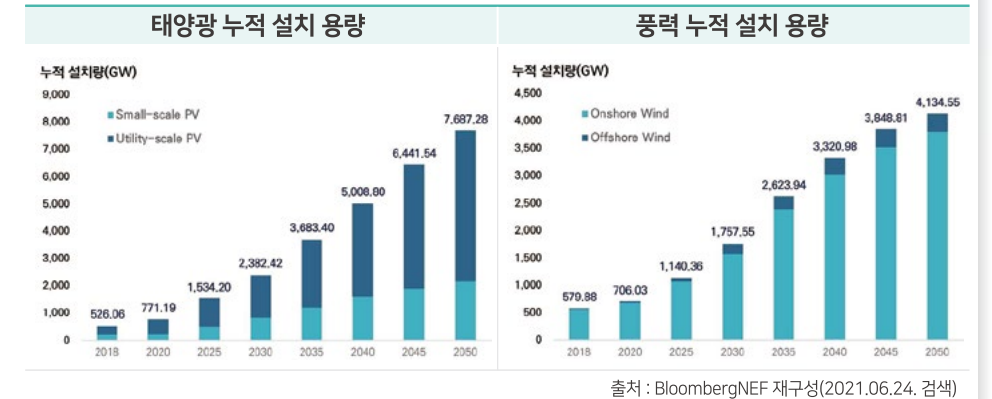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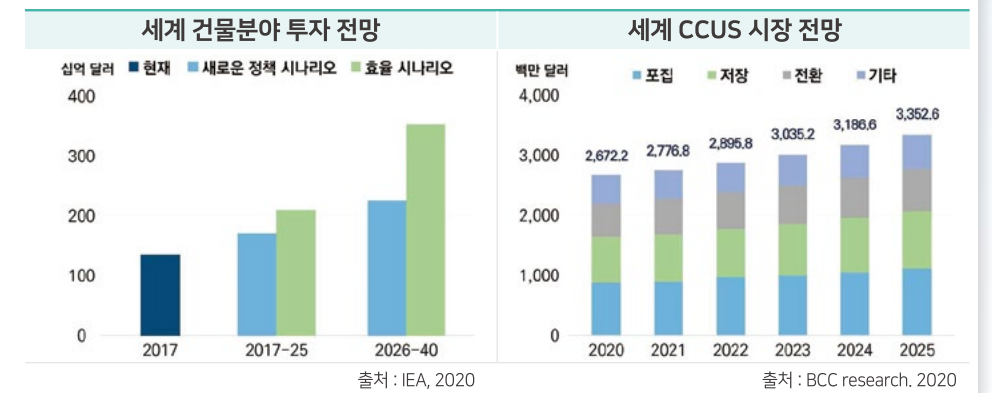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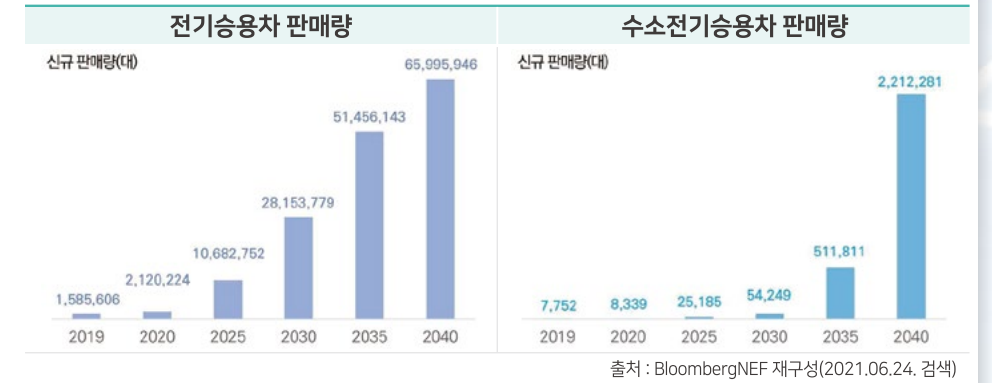
독일은 에너지 안보를 위해 당초 2050년까지 달성하기로 한 재생에너지 비중 100% 달성을 2035년까지로 15년 앞당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폐기물 문제 등으로 소외됐던 원자력이 재부상하는 계기도 됐습니다. 탄소중립과 '탈 러시아' 에너지 안보를 위해선 값싸고 안정적인 원전 이외엔 대안이 없다는 판단입니다.

주요국 NDC 상황

국가	NDC 조정 내용
 미국	2025년까지 2005년 대비 26~28% 감축 →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50~52% 감축
 영국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68% 감축 → 2035년까지 1990년 대비 78% 감축
 일본	2030년까지 2013년 대비 26% 감축 → 2030년까지 2013년 대비 46% 감축
 EU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40% 감축 →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최소 55% 감축

※ 2021년 4월 22일 기후정상회의

탄소중립 관련 글로벌 시장 전망



새 정부, 탄소중립 목표 유지하되 실현 가능성 보완

윤석열정부 탄소중립 및 에너지신산업 창출 연차별 이행계획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재생에너지 확대	· 주민수용성 관련 제도개선 /가이드라인 발표 · 태양광 모듈 탄소검증제 강화 · 풍력 입찰시장 제도 시행	· 국공유지 재생에너지 개발 통합플랫폼 구축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	· 수소경제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수소발전제도 시행 · 해외수소생산 전략 마련 · 수소수급계획 마련 · 수소특화단지 지정 · 액화수소 시설 안전기준 제도화	
탄소중립 이행방안 수립	·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계획 수립 · 기후변화영향 평가 시범사업 및 규정 제정 · 온실가스감축 인지 예산제 시행	· 에너지 산업 수송부문 NDC 달성방안 수정 ·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이행점검 · 기후변화영향 평가대상 확대 시행 · 온실가스감축 인지 예산제 확대방안 마련	·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이행점검
한국형 녹색분류 체계 확립	· 녹색분류체계 시범사업 추진 및 전담기관 지정 · ESG 컨설팅 사업 착수		· 환경표지 인증기준 전부 개정
공간과 이동의 탄소 중립	· 탄소공간지도 구축 및 고도화 마련 착수 등 · 사업용 수소차 수소 연료 보조금 지급	· 탄소중립도시 및 수소도시 지정	
원전 활용 강화	· 상위에너지 계획에 신한울 3,4 재개 및 수명만료 · 원전의 계속운전 반영 · 계속운전 관련 원안법 시행령 개정	· 신한울 3,4 재개 관련 인허가 협의 진행 · 고리2,3호기 운영변경허가 신청 · 계속운전 관련 원안법 개정	· 2030년까지 운영허가 만료원전 전체에 대한 운영변경허가 신청
원전 수출산업화	· 원전산업 생태계 실태조사 · 원전수출 전략추진단 신설 · 원전수출 거점공관 지정 및 전담관 파견	· 조기 일감 창출 등 원전산업 생태계 지원 · 공공기관 원전수출 기능 협력체계 마련	· 신한울 3,4 주계약 체결 등 생태계 지원
차세대 원전 기술 확보	· 혁신형 SMR 기술개발사업 예타심의 대응 · 원전연계 수소생산 실증기반연구 착수	· 혁신형 SMR 기술개발 사업 착수 · 핵융합 전력생산 실증을 위한 장기 R&D 로드맵 수립	· 혁신형 SMR 표준설계 개발 및 검증 · 원전연계 수소생산 실증설비 구축 사업 착수 · 핵융합 실증로 미확보기술 개발사업 기획 및 예타추진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재생에너지 확대	· 10MW급 풍력시스템 개발	· 차세대 탠덤 태양전지 상용화	· 초대형 부유식 해상풍력 부유체 개발 · 초대형(15MW ↑) 풍력시스템 개발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	· 해외 수소, 암모니아 도입		· 발전용 배관 내 수소 혼입 개시 · 세계 최초 액화수소 운송선 건조
탄소중립 이행방안 수립	·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이행점검	·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이행점검	·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이행점검
한국형 녹색분류 체계 확립			· 환경표지 인증 대상 확대(소비재 기준 30개)
공간과 이동의 탄소 중립	· 수소차 전용검사소 준공 · 공공건물 그린리모델링 확산		· 무궁화호급 수소기관차 개발
원전 활용 강화	· 신한울 3,4 착공 · 고리2호기 운영변경허가 심사 완료	· 고리2호기 설비개선 완료 및 계속운전 시작	· 수명만료 원전별 심사절차 완료후 계속운전 시작
원전 수출산업화	· 계속운전 설비개선 투자 등 생태계 지원		
차세대 원전 기술 확보	· 혁신형 SMR 표준설계 개발 및 검증 · 원전연계 수소생산 실증설비 건설	· 혁신형 SMR 표준설계 인가신청 및 인허가 대응 · 원전연계 수소생산 실증설비 건설 · KSTAR 1단계 운영 종료(300초 운영 목표 달성)	· 혁신형 SMR 표준설계 인가신청 및 인허가 대응 · 원전연계 수소생산 실증설비 운영 · 수출용신형 연구로 운영 착수 · 주요 방사성동위원소 생산/양상 기술 확보



올해 5월10일 출범한 대한민국 새 정부는 국제적으로 약속한 2030년 NDC와 2050년 탄소중립 달성 목표를 유지하면서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보완해 가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30년 원전 발전 비중을 상향하고, 재생에너지는 주민 수용성과 경제성,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 등을 고려해 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석탄·LNG 발전은 재생에너지 등 전력 수급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감축한다는 복안입니다.

이런 기조 하에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분야가 원자력입니다. 새 정부는 원전을 기저전원으로 적극 활용하고 원전 생태계 강화와 수출, 유망기술 확보 등을 통해 원전 최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U(유럽연합) 사례를 참고해 녹색분류 체계에 원전을 포함하고 2023년부터 본격 현장 적용해 녹색 투자분야 자금 유치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를 위해 2025년 상반기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법적, 제도적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고리2호기 등 설계수명에 도달할 예정인 10기의 원전에 대한 수명연장에 나기로 했습니다. 특히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올해 중 원전수출전략 추진단을 꾸리는 등 정부와 유관기관, 민간의 협력을 강화키로 했습니다.

수소도 원자력과 함께 새 정부의 에너지믹스를 뒷받침하는 양날개 역할을 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국제적으로 수소 경제 '퍼스트무버'로 인정받고 있는 만큼, 보다 안정적인 청정수소 생산·공급기반을 마련해 세계 1등 수소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일자리와 국부를 창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주력산업 육성 경험과 세계적 경쟁력을 기 확보한 수소전기차·연료전지 등 활용 분야 기술을 접목해 글로벌 수소경제를 선도한다는 전략입니다.

수소경제전담기관인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H2코리아, 진흥전담기관)과 한국가스공사(유통전담기관), 한국가스공사(안전전담기관) 등 공공기관이 중심이 돼 수소경제의 핵심인프라 구축을 위해 전력투구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수소전기차 연료전지 등 기술경쟁력을 확보한 분야를 중심으로 수소 국제협력체를 활용한 국제표준 제정에도 발벗고 나섰 습니다.

에너지 안보를 기반으로 태양광, 풍력, 수효관리 등 에너지 신산업 창출을 위한 정책도 추진합니다. 원자력을 기저 발전원으로 하되 대규모 에너지 생산이 가능한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산업을 고도화함으로써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대규모 일자리도 창출한다는 구상입니다.

한국전력공사 발전자회사들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는 한편 R&D(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함으로써 탄소중립 시대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한국 대표기업들이 된다



‘민간 주도 성장’이라는 새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에 발맞추듯 탄소중립 녹색성장의 중심에도 우리 기업들이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의 횃불은 미국, 유럽의 선진국들이 먼저 들어 올렸지만 고도화된 IT(정보통신)와 케미칼, 모빌리티, 에너지 산업 노하우로 무장한 우리 기업들이 빠르게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수소전기차 기술을 보유한 현대차그룹은 국내 수소 생태계 구축에 주춧돌 역할을 하고 있는 동시에 빠르게 대세로 떠오르고 있는 전지차 시장에서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SK그룹은 업계 1위인 정유 부문과 LNG 등 화석 에너지와 새롭게 추진하는 수소, 탄소포집저장(CCS), 배터리, 자원재활용 등 다양한 그린 산업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에너지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을 중국 CATL에 맞서는 글로벌 배터리 회사로 키워낸 LG그룹은 기술력으로 무장한 LG화학이 수소와 자원 순환에 속도를 내고 있고, LG전자도 새롭게 열리는 미래 모빌리티 시장의 전장 부문 강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인 포스코는 명운을 걸고 수소환원제철을 성공시킴으로써 탄소중립의 해결사로 급부상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최고 조선그룹인 현대중공업그룹은 협력사인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 등과 함께 수소 생산 및 유통, 운송선박(수소 운반선)까지 아우르는 글로벌 수소동맹 구축에 나섰습니다.

태양광 모듈 부문 세계 1위인 한화그룹과 재생에너지, 가스터빈, 원전, 수소 등 친환경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모두 갖춘 두산 그룹도 탄소중립 시대 주인공이 될 준비에 한창입니다.

세계 최대 액화수소 공장을 건설중에 있는 효성, 친환경 소재 부문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코오롱, 정유와 화학업계 강자로 수소 등 그린 전환 분야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GS그룹과 롯데케미칼의 행보도 주목할만 합니다.

대한민국 대표 기업인 삼성도 삼성SDI가 배터리 부문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했고 삼성전자도 RE100 선언이 임박해 있는 등 탄소중립의 주역으로 큰 걸음을 시작했습니다.

‘그린 비즈니스 워크 2022’는 대한민국 미래와 함께 합니다.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은 지속가능한 지구를 향한 전 인류의 도전이자, 대한민국 경제의 운명을 좌우할 결정적 분기점입니다.

성장과 생산성만 보고 달려왔던 인류의 경제 활동이 지속가능성이라는 새 패러다임 아래서 시스템을 재설계해야 합니다. 저탄소 청정에너지로의 전환과 그에 따른 산업, 소비 생활의 대전환, 그 속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먹거리를 찾아내야 하는 어려운 도전입니다.

국가적인 역량 결집 없이는 실현이 불가능합니다. 기업 등 민간 부문은 전향적인 자세로 모든 역량을 투입해야 하고 정부와 국회는 규제 완화, 기술개발 등에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탄소국경세 등 글로벌 규제에 따른 우리 경제의 충격도 방어해야 하고,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글로벌 협력 프로젝트에서도 정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국민들도 착한 소비로 우리 경제의 탈탄소 대전환에 힘을 실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야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국회수소경제포럼과 머니투데이가 2019년 수소엑스포로 시작해, 그린뉴딜 엑스포를 거쳐 올해 ‘그린 비즈니스 워크 2022’를 개최하는 것도 이런 국가적인 역량 결집에 일조하기 위해서입니다.

3년 전 개최한 수소엑스포는 먼 미래의 일로만 여겨졌던 수소 경제의 불씨를 한국 경제에 현실로 옮겨심는 계기가 됐습니다. 수소를 포함하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산업으로 전시 영역을 확장한 후에는 대한민국 대표기업들이 참가해 기술력을 선보이고, 정보를 나누며, 국민들께 한국 경제에 대한 희망과 자부심을 심어주는 역할을 해냈습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산업의 전면적 도약을 준비해야 하는 올해는 코엑스와 함께 엑스포와 잡콘서트, 컨퍼런스를 포괄하는 ‘그린 비즈니스 워크 2022’로 행사의 격을 높였습니다.

엑스포는 탄소중립을 위한 우리 기업들의 혁신적인 사업 전환 노력을 보여준다는 의미를 담아 그린볼루션(그린(Green)+에볼루션(Evolution))이라는 이름을 달았습니다. 지난해 10개 대기업들이 참여해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미래 인재들을 만났던 잡콘서트, 탄소중립 글로벌 트렌드를 탐구하게 될 컨퍼런스와 함께 우리 기업들이 그리는 미래 청정 에너지 세상과 탄소중립과 관련한 글로벌 흐름을 담아내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전시회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전시장 소개

- 코엑스 A홀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3



전시관



컨퍼런스장



memo



그린 비즈니스 위크 2022